

요약

일본 반려동물보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음. 이에 따라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증가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음. 일본에서 반려동물보험은 주로 펫샵과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제공됨. 한편, 2021년부터 대형 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 사업에 진출하여 기존 보험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일본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성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¹⁾
 - 2022년 일본 반려동물보험 원수보험료는 약 1,179억 엔으로 추정되며, 최근 3년간 CAGR은 12.6%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일본 반려동물보험의 가입률은 최근 10년 10% 이상 증가하여 2022년 현재 약 16% 수준에 이르렀음
 - 일본 반려동물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공적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수 증가, 가족화, 장수화, 치료비 부담 상승 등 요인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성장할 여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개와 고양이의 총 마릿수는 동물보호법 개정의 영향으로 2013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지만 일본의 저출산 지속 상황에서 15세 미만 인구(2022년, 1,045만 명)를 웃돌 만큼 큰 규모(2022년, 1,588만 마리)를 유지하고 있음
 - 반려동물보험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과 동등한 가입률(50%)까지 성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1년 일본 반려동물보험 시장 규모가 약 3,500억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반려동물보험 시장 확대에 의해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반려동물보험 상품이 다양화되고 있음
 -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일본 보험회사는 2006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여 2023년 9월까지 손해보험회사 6개 사, 소액단기보험회사 13개 사로 총 19개 사로 확대됨
 -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 전문 손해보험회사 및 종합 손해보험회사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반려동물보험 분야에서 1~3위를 차지한 보험회사인 Anicom General Insurance, iPet General Insurance, Pet&Family General Insurance는 모두 전문 손해보험회사임
 -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보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의 84.6%에서 2021년에는 73.2%로 축소됨
 - 이 중에서 반려동물보험 1위인 Anicom General Insurance의 시장점유율은 2014년 54.9%에서 38.8%로 하락함

1) Deloitte(2023. 9), “拡大を続ける ペット保険市場の動向”

- 보험회사 증가에 따른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 상품은 차별화되어 보장범위가 다양화되고 있음(〈표 1〉 참조)
 - 반려동물보험은 주계약으로 통원, 입원, 수술을 보장하며, 특약으로 손해배상책임, 장례비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부대 서비스로 건강상담, 건강증진, 실종 동물 수색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장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 많은 보험회사는 저렴한 반려동물보험을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보장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률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을 제공하고 있음
 - 반려동물보험의 가입 연령 상한은 일반적으로 7세 11개월~12세 11개월로 설정되고 있으며 고령 반려동물도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이 등장함
 -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으로 설계되지만, 보험기간 만료 이후 자동으로 갱신되며 원칙적으로 평생 보장이 가능함

○ 반려동물보험은 일본에서 주로 펫샵과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데, 펫샵은 반려동물 구매 시 보험 가입에 주로 활용되고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은 보험 갱신이나 저렴한 보험료를 찾는 경우에 주로 사용됨

-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주요 경로인 펫샵이 고객에게 판매된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을 안내하여 보험 가입을 권고하는데, 이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상위 3사가 독점하고 있음
 - 펫샵 채널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넓은 보장내용, 높은 수수료, 강력한 대리점 지원이 요구되는데, 이는 신규 보험 회사에게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은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 갱신 시기에 저렴한 보험료와 적절한 보장내용을 갖는 보험상품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펫샵 채널을 개척하기 어려운 보험회사들의 주력 채널임
- 한편, 펫샵과 온라인 다이렉트 채널 외에도 반려동물 양도회, 동물병원 등과 같은 대면 채널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타 보험회사의 영업조직을 통해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한편, 2021년부터 대형 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 사업에 진출하여 기존 보험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²⁾

- 아이오이닛세이 동화손해보험, 에플락 생명보험은 반려동물보험을 취급하기 위해 각각 Little Family SS Insurance (2021년 7월), Aflac Pet Insurance(2022년 11월)를 설립함
- 2023년 3월 도쿄해상일동화재는 반려동물보험 1위인 Anicom General Insurance의 모회사와 자본제휴를 맺었으며, 다이이치생명보험은 반려동물보험 2위인 iPet General Insurance의 모회사를 인수함
-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들은 주로 반려동물보험 사업을 개척하여 기존 고객에게 반려동물보험을 제공하고, 동시에 신규 반려동물보험 고객에게 자사의 기존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도모함
 - 또한 일부 대형 보험회사는 반려동물보험 제공하여 자사 고객들(특히 노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효과를 기대함

2) JA共済総合研究所(2023. 10), “ペット保険の現況 (前編) —提供する保険会社の概況とペット保険の概要—”

〈표 1〉 일본 반려동물보험 개요

항목	세부 내용
1. 가입연령, 보험기간 등	
(1) 가입연령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려동물 신규 가입 시 연령 상한은 7세 11개월~12세 11개월로 설정하는 보험회사가 많음 고령 반려동물보험에는 가입연령 제한이 없음
(2) 보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신규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 자동 갱신이 원칙적으로 평생 보장 가능
(3) 면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 체결 시 면책기간을 설정하는 보험회사 많음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암 등 특수 질환을 제외하고 면책기간이 15일 또는 30일로 설정됨(암의 면책기간이 보통 45·60·90·120일로 설정)
2. 주계약의 보상내용, 한도 등	
(1) 기본 보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계약은 반려동물이 질병, 부상으로 일본에서 통원, 입원, 수술을 한 경우에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 상기 보상내용을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가입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범위(예: 입원과 수술만, 통원만, 수술만, 부상만)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많음
(2) 지급보험금 금액(보상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대상이 되는 의료비에 보상비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보상비율은 50, 60, 70, 80, 90, 100%가 있는데 50%와 70%인 상품이 가장 많음
(3) 지급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 보험상품에 따라 다양하지만 아래 ①, ②, ③와 같이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음 ① 보상대상(통원, 입원, 수술)별 '1일당 지급한도액'과 '보험기간 동안의 지급한도 일수(회수)'를 설정. 이 경우에 각 보상대상의 지급한도액의 합이 보험기간 내의 지급한도액이 됨 ② 보상대상별 제한을 설정하지 않고 '보험기간 내의 지급한도액'만 설정 ③ ①과 ②의 절충 방안으로 '보상대상(통원, 입원, 수술)별 지급한도액'만을 설정하고, '각 보상대상의 지급한도액'의 합이 '보험기간 내의 지급한도액'이 됨
(4) 특수 보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 보험금으로 휠체어 비용, 예방 후 치료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있음
3. 특약의 보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의 설정 상황은 다르지만 주된 특약으로는 아래 ①, ②와 같이 있음 ① 반려동물 배상책임 특약: 다수 보험회사가 설정 ② 장례비용 보상 특약: 여러 보험회사가 설정
4. 보험료	
(1) 보험료를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종류, 품종, 연령에 따라 산정됨. 개의 경우에는 연령뿐만 아니라 각 개종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음. 고양이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구분이 기본적인.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노화로 인해 계약 갱신 시 보험료가 높아짐
(2) 할인할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보험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할인할증제도로는 다수 동물 가입 할인, 무사고 할인, 온라인 가입 할인, 마이크로칩 설치 할인, 동일 보험회사의 자동차·화재 보험 가입 할인 등이 있음
5. 부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건강상담 서비스, 동물 건강증진 서비스, 실종 동물 수색 서비스 등이 있음
6. 기타(계약 가입, 보전)	
(1) 판매채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펫샵, 온라인, 대리점, 반려동물 양도회 등이 있음
(2) 보험금 청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적으로 전국 어느 동물병원에서든 진료받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됨. 많은 보험회사가 치료비 영수증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완료하는 시스템을 도입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제휴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 한해 정산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가입자가 치료비의 자기부담금만을 지급

주: 상기 반려동물보험 개요는 어느 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 내용이 아니고, 각 보험회사의 반려동물보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된 자료: JA共済総合研究所(2023. 10), “ペット保険の現況 (前編) —提供する保険会社の概況とペット保険の概要—”